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두려움

저의 보좌 시절 소소한 즐거움은 수녀님들을 놀래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이나 회합실 구석에 숨어 있다가 수녀님들이 지나가시면 ‘악’하는 것이었지요. 대부분의 수녀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그 장난을 참 즐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은 그 당혹스러운 순간에 모두 같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마치 어떤 것도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두려움이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나쁜 원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2020년 6월 21일 연중 제12주일 삼종기도 중). 두려움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마저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라는 마귀를 쫓아내시자 그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청합니다(마르 5,17). 하느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들 마저도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혈하는 여인과 아이로 회당장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지혜 1,13)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하느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가끔은 하느님 아닌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매달릴 때 그분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시고, 더 단단히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증언할 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두려움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김인식 대철 베드로 신부 | 교포사목(미국 오거스타)



제 1 독 서 지혜 1,13-15; 2,23-24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서 2코린 8,7,9,13-15
복 음 마르 5,21-43 또는 5,21-24,35L-43

주일 진레

▶ 교구청 신축 기공식 2면

“이 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시편 118,24 가)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기공식

·일시 : 2021. 6. 19.(토) 14시 ·장소 : 진전면 죽현로 72 마산교구청 신축부지 ·주례 :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기공식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기공식이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6월 19일(토) 교구청 신축부지(마산합포구 죽현로 72)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받은 교구 사제와 신자, 내빈 등 26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구장 주교는 “7년 전에 안명옥 주교님께서 이 땅을 마련하셨고, 기공식을 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신 안명옥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교구청 신축 공사가 잘 끝나고, 이 지역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임곡리 조현옥 이장은 “교구청이 완공되면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복음화 터전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참석자들도 교구청 신축공사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였다. 새 교구청 봉헌식은 내년 2022년 10월 말에 거행될 예정이다.



총대리 최봉원 신부



조현옥 이장



하느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사랑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매일 기도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고통에 대해 하느님께서 왜 침묵하시나요?”

“고요히 침묵 가운데 머물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는데 온갖 생각들만 가득합니다.”

요즘 저희 분도 명상의 집에는 많은 분들이 고해 성사와 면담을 위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50~60대 어머니들은 자식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자녀들이 “예전에는 말도 잘 듣고 성당에도 잘 다니고 복사도 서는 착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성당에 가라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외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녀들은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하느님’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의 지켜보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곤 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돌보아 주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직접 돌보는 사랑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지켜보는 사랑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십자가 아래에서는 눈물로 그 고통에 함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이 ‘나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당에 계신 하느님을 넘어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성모님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지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성당에 가라는 잔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고, 성당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세요.”

성모님의 드러나지 않는 겸손과 침묵의 삶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침묵 역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루카 15,11-32 참조)을 침묵 중에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기에 침묵으로 기다려 주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침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역시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불의에 방관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외침을 진정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침묵 중에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자신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현존 체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듣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듣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의 삶은 침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침묵이 곧 나의 구원이다.”(『고독 속의 명상』) 침묵은 또한 말 없는 창조물과의 영적 친교요 휴식이기도 합니다. 머튼은 『인간은 섬이 아니다』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가 침묵을 지키며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면 말 없는 존재들의 침묵이 그들의 휴식을 우리와 나눌 것이다.”

이러한 영적 침묵은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로부터 떼어 놓는 외적 침묵은 보다 자신을 하느님께 집중하게 하며, 자신을 거짓 자아로부터 떼어 놓는 내적 침묵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따라서 침묵은 외적인 말과 내면의 소리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히 머물며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죄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하느님과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침묵은 하느님의 침묵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늘 사랑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침묵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침묵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스도 페르소나를 입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1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엘리자벳 보글러

난 당신을 이해해요. “존재하기”를 부질없이 꿈꾸고 있죠.
남들 눈에 비친 모습 말고 당신 그대로의 존재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긴장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게다가, 남들과 있을 때의 자신과 혼자일 때의 자신 사이의 괴리.
현기증과 갈망이 계속되겠죠. 이제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가식 없는 모습, 조각조각 난 자신을 드러내고, 심지어 사라져 버리고 싶은...

모든 목소리와 몸짓은 거짓이고 가짜, 모든 미소는 사실 찌푸림이고...
자살하는 것? 아뇨! 그건 흥해요. 당신은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움직이길 거부하거나 말을 안 할 수는 있죠. 그럼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도 되니까.
당신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작동을 멈추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기도 할 필요 없죠. 가식적인 표정도 몸짓도.

하지만... 현실은 그러도록 놔두지 않아요. 지금 숨은 곳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삶이 여기저기서 밀고 들어올 테고, 당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묻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연극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죠.
사실 연극에서도 그다지... - 영화, 페르소나. 스웨덴 1966. 잉마르 베리만 감독 -

엘리자벳 보글러,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어느 날 무대 위에서 연기 도중, 갑자기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정부는, 완전히 깬 상태에서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엘리자벳을 발견합니다. 그런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었고 정신 검진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알마’라는 이름의 간호사가 배정되었고, 이제 둘은 의사의 권유로 여름 별장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희망 없는 꿈과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함
파멸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 삶에 대한 고통스런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피안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갉아먹는다.
어둠과 침묵에 맞선 우리 믿음과 의혹의 울부짖음은, 우리가 포기했음을 참담하게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지식은 두려움에 떨어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마가 읽어준 책의 내용에 엘리자벳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엘리자벳은 텔레비전 속 장면을 보고 경악한 일이 있습니다. 한 승려가, 한낮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인신공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승려 앞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립니다.

엘리자벳에게는 연기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배우로서의 모습과 삶을 그는 최선을 다해 연기해 냈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모든 것이

온통 거짓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연기하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연기로서가 아닌 진짜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은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알마

젠장! 참 이상하지 뭐야.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텐데...

난 칼 헨릭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몇 낳을 거고, 그 애들을 키우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마음 폭 놓고 살아도 돼.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행복해.

그것도 좋은 거지.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좋다구.

엘리자벳의 이상적이고 숭고해 보이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삶과 달리, 자신의 삶은 현실적인 소박한 삶이라 여깁니다. 그런 삶에 알마는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내 가장 큰 문제는 게으름을 피우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칼 헨릭은 나더러 야망이 없다고 잔소리 해요. 몽유병 환자처럼 어슬렁거릴 뿐이라고.

그 말은 부당해요. 시험을 보면 내가 1등이었거든요. 물론 칼은 다른 면을 얘기한 거겠지만요.

현실적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이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현실에서 가능한 이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을 두고, 내 안에서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른 남자와) 5년 동안 사귀었어요.

물론 나중엔 그가 싫증을 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확실해요. 첫사랑이었구요.

지금 생각하면 오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적어도 난 그에게 있어 현실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고통은 현실이었죠, 확실히.

어찌 보면 고통이란 그런 애기의 일부죠. 구질구질하지만, 마치 고통은 당연히 따르는 거라는 듯.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상은 모든 게 장밋빛이지만, 현실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과연, 고통 없는 이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떠난 이상, 고통을 외면하는 이상은, 이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로망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을 부정한 로망에 집착합니다.

엘리자벳 보글러와 알마

용서와 사랑, 희망과 구원을 연기했던 엘리자벳, 이제 그런 연기하는 삶에는, 용서와 사랑, 희망과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기 인생을 멈추고, 무기력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소박하고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 살 아온 알마, 작은 행복을 꿈꾸고, 그러면서도 때론 일탈도 하며,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나름, 치열하게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두 사람 사이 여러 지점 중, 어디쯤 있을까요?





기억할 선종 사제
제찬석(요한) 신부
2012년 6월 30일



교구장 동정

부산교구 신호철 비오 보좌 주교 서품식
일시: 6월 29일(화) 14:0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교구/본당

성경공부 1학기 종강(각 본당)

일시: 6월 28일(월)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미사 시간 추가 및 일정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명서동성당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

사업명: 손옹이(손에 닿을 곳에 시민옹호인이 있다)

활동기간: 6월~12월/ 지원: 창원복지재단

모집대상: 마산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7명,
발달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7명

내용: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이 1:1 매칭되어
다양한 활동 지원(예: 동네 카페가기, 도서관 회
원등록하기 등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가능)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55·247·5194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월 4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진주 황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동안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샴푸
EM힐데비누
힐데스킨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경순 힐데 수녀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 여름김장 나누기

여름이니까~ 여름김장



무더위에 식욕부진까지
어려운 이웃에게는
올여름도 걱정입니다.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해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급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여름김장을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7월 13일(화)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2021년 6월 27일 교황 주일

오늘 6월 27일은 교황 주일입니다.
신자들이 교황 성하를 위해 기도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당일 미사 끝에는 '교황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90쪽)
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보편 교회 사목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故 김영식 신부,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김경수 지사(경남지사)는 6월 10일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중
故 김영식 신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을 추서했다. 김영식 신부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1985년 3월에는 민
주통일민중운동연합 경남지부 사무
국장을 맡았으며, 6·10민주항쟁 당시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 상임
대표로 활동하며 항쟁을 이끌었다.



사진 및 기사 참조: 오마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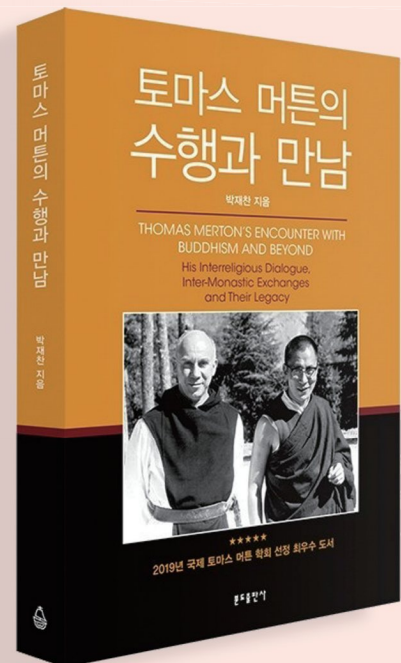
신간소개

토마스 머튼의 수행과 만남

“선禪과 그리스도교가 미래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머튼이 한 동료에게 남긴 이 말을
단초 삼아 새롭게 펼쳐 보이는 머튼의 삶과 영성

미국 켄터키주 젯세마니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자
작가, 신비가, 평화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머튼은 종교
간 대화와 일치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불교·그리스
도교 대화'와 '수도승 종교 간 대화'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
로, 관상적 단계에서 아시아의 종교 전통과 대화를 도모한 공
로가 크다. 이 책은 토마스 머튼이 제시하는 관상의 영성과 더
불어 종교 간 대화의 기본 원리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줄 것이다.



- 지은이: 박재찬 신부
- 출판사: 분도출판사



하느님의 섭리와 요셉의 인생 여정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야곱은 스켄을 떠나 베텔에 정착하였다가 결국 아버지 이사악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사악은 백여든 살에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형 에사우와 함께 아버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창세 35,29).

그래서 우리의 스무 번째 순례 여정은 다시 헤브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따라 헤브론을 떠나 베텔을 거쳐 하란까지 갔다가 요르단 강 동편 땅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다시 헤브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의 아들들로 옮겨갑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였고,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의 태도도 형들의 미움을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또 자신이 형들보다 위대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형들에게 감출 수 있는 신중함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 떼를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다가 구렁이에 갇히게 되었고, 형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기기 이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견되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저고리에 숫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보여주며 길에서 주웠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이집트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파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외국 땅의 노예가 된 요셉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티파르는 그를 재산 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아름다웠던 요셉을 탐하였던 보티파르의 아내는 거둬하여 그를 유혹하였고, 요셉이 이 유혹에 굴하지 않자 그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자애를 베푸시어 그가 전옥의 눈에 들게 해 주셨습니다(창세 39,21). 얼마 후에 파라오의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이 보티파르의 감옥에 투옥되어 요셉이 그들의 시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헌작 시종장에게는 삼 일이 지나면 복직될 것이니 자신의 사정을 파라오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요셉의 풀이대로 헌작 시종장은 복직되었으나 그는 그만 요셉의 부탁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파라오는 이상한 꿈을 연달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진 일곱 암소가 나중에 올라온 야윈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마른 이삭 일곱이 먼저 올라온 좋은 이삭 일곱을 삼켜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현인을 불러 꿈을 풀이할 것을 명하였지만 아무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파라오 앞으로 불러 나온 요셉은 파라오의 꿈은 7년의 풍년에 이어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임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니 7년간 계속될 흉년을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이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삼십 세에 파라오 다음가는 재상이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놀라운 인생 역전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섭리가 꿈은 신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섭리의 결말을 보기 위해 이집트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헤브론 시가지
사진출처: 위키백과